

일부未婚女性の結婚觀에 대한 調查研究
— 家族保健 側面을 中心으로 —

林 眞* · 金 初 江**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건강교육과 ·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교육과)

目 次

I. 序 論	III. 調查結果 및 考察
II. 研究方法	IV. 結論 및 提言

I. 서 론

1. 問題의 提起

結婚觀 및 結婚形態는 社會變遷에 따라 그 樣相을 달리 해왔고, 이러한 점이 家族生活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¹⁾ 특히 오늘의 급속한 産業化 過程은 교육 및 고용기회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결과는 結婚樣相도 早婚에서 晚婚으로 이어지고, 結婚決定도 부모에 의해 주도되어 오던 것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점차 바뀌어 가므로, 未婚女性들의 변화된 結婚觀은 社會 人口學의 側面은 물론 家族保健 側面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서 結婚觀이란 結婚에 대한 總體的 價値基準으로, 이것은 반드시 실제행동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나타난 觀念的 類型을 기초로 行動類型이 類推될 수 있다. 즉 現在 結婚을 앞두고 있는 未婚女性들의 結婚觀을 土臺로 未來의 結婚樣態나 家族形成의 變化를 豫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

구체적인 結婚觀 內容으로는 結婚意思, 結婚時期,

配偶者 選擇條件, 結婚 후 家庭計劃 등이 이에 포함되며, 또 家庭計劃은 子女의 出産과 養育 등 再生産計劃 뿐만 아니라 가족주기에 따른 個人의 活動과 家族 共同體의 生活計劃 등을 포함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단순한 農耕社會 속에서 大家族 중심의 가족생활을 영위해 오다가 2차 産業社會로 변모 하면서, 여성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인구정책차원에서 선용되고 교육되어진 家族計劃 避妊方法이 일반에게 大衆化되면서, 少子女 가치의식과 出産力 低下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게 되었다. 또한 정보화 및 과학화시대의 도래는 汎太平洋時代로 변모하면서, 우리의 고유한 家族構造와 機能 및 그 役割의 변화는 물론 생애가치 관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여 結婚論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에 변모된 만혼경향과 소자녀관 및 결혼 후 취업희망 양상 등은 未來社會의 家族과 人口構造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未婚女性의 結婚論 研究은 앞으로의 家族保健과 人口問題를 미리 진단하여 정책수립을 가능케 해 준다는 점에서 그 活用價値가 크다고 본다.

이와같이 未婚女性의 結婚論은 保健分野의 여러 면

에서 중요한 意味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分野의 研究는 미비한 狀態에 있으며, 단지 既婚女性을 對象으로 한 부분적인 調查研究^{2) 3)}가 발표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未婚女性의 結婚觀을 조사분석하여 이러한 結果가 家族保健 側面에서 어떤 有意性을 지니며, 앞으로 結婚形態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檢討하려는 데에 焦點을 두었다.

2. 研究 目的

本 研究는 未婚女性의 結婚觀에 대한 調查研究로서, 結婚 및 家族에 대한 意識이 어떻게 변화했고, 또 社會階層에 따라 어떤 差異가 있으며, 이러한 結果가 家族保健 側面에서 차지하고 있는 意義를 재조명하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맥락에서 本 研究의 구체적인 分析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結婚의 必要性和 獨身性向을 推定한다.
- 2) 結婚時期의 변화 추세를 分析한다.
- 3) 配偶者 選擇의 양상을 分析한다.
- 4) 結婚 후 希望 子女數, 媳父母와의 同居 및 就業與否 등의 양상을 分析한다.

II. 研究方法

1. 調查對象 및 資料收集

本 研究는 미래社會의 結婚形態 및 家族構造의 변화를 예측해 보기 위한 未婚女性의 結婚觀 調查이므로, 結婚適齡期에 있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未婚女性을 研究對象으로 제한했으며, 대상 선정상 未婚이라는 制約으로 인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女大生과 同年齡集團의 職業女性의 일부를 선정하였다.

標本抽出方法은 서울시에 있는 10개 大學校와 10개의 일반 事業體를 임의로 선정하여, 1개교에 25명씩 총 250명의 女大生과 1개 사업체에서 25명씩 총 250명의 女社員을 합한 500명을 調查對象으로 하였다.

資料 收集은 1991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설문지를 도구로 현지에서 배부 및 회수하였다. 수집방법은 研究者가 10개의 大學校 休憩室을 찾아가 女大生들에게 조사표를 직접 배부하여 현지에서 자기기술 方法으로

작성케 한 후 직접 회수하였고, 10개의 일반사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女社員을 1명씩 총 10명을 調查員으로 選擇하여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각 調查員이 자신의 사업체에 들어가 직접 주위의 동료들에게 研究의 趣旨와 記載要領을 설명한 후 현지배부 및 수거에 의해 조사하였다.

500부 배부된 설문지 중 438부(87%)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2부를 제외한 436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使用하였다.

2. 研究道具

研究道具는 1991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既存의 여러 相關 文獻을 참고로 작성한 후, 1991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50명을 임의 選定하여 事前 調查를 실시한 후, 이를 수정 보완하여 調查道具로 使用하였으며, 구체적인 研究內容은 表 1과 같다.

표 1. 研究道具의 內容

영역	연구 내용	문항수(21)
個人的 特性	年齡, 教育水準, 兄弟數 및 兄弟順位, 父母의 生存與否 및 父母의 教育水準	6
結婚 意思	結婚의 必要性 結婚生活 및 獨身生活의 利點	3
希望 結婚時期	希望 初婚年齡, 未婚 理由	2
配偶者 選擇	配偶者와의 年齡差, 配偶者 選擇條件, 配偶者 選擇 및 決定方法	4
結婚 후 家庭計劃	希望 子女數, 男兒選好度, 媳 父母와의 同居與否 및 理由, 就業希望與否 및 理由	6

3. 資料分析

本 資料는 1991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SPSS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研究結果 및 考察

1. 對象者의 個人的 特性

本 研究에서 調査對象의 年齡別 분포는 21-23세가 전체의 61.5%이었고, 다음 24-26세, 27세 이상 순으로 각각 24.7%, 13.8%를 나타냈으며 教育水準別로는 高卒이 44%, 大在以上이 56%를 차지하고 있었다.

父母生存與否는 兩親 모두 生存인 경우가 총 응답자 중 85.6%이었고, 便父母를 가진 응답자는 14.4%이었다.

父의 教育水準은 대졸이상과 중·고졸이 각각 3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졸이하는 20.8%를 차지한 반면, 母의 教育水準은 중·고졸이 44.1%, 국졸이 35.0%, 대졸이상인 20.9% 순으로 母의 教育수준이 父의 教育수준에 비해 낮았다.

兄弟數는 응답자를 포함한 3명 이상이 82%, 2명 이하가 18%로 나타났고, 兄弟順位別로는 첫째가 28.4%, 둘째이하가 67.5%, 무남독녀가 0.1%이었다. (표 2 참조)

표 2. 對象者의 個人的 特性

個人的特性		頻度(명)	百分率
전	체	436	100.0
연 령(세)			
21	- 23	268	61.5
24	- 26	108	24.7
27	以 上	60	13.8
교 육 수 준			
高	卒	192	44.0
大	在 以 上	244	56.0
부 모 생 존			
父 母 生 存		373	85.6
便 父 母		63	14.4
父 학 력 ¹⁾			
國 卒 以 下		88	20.8
中 · 高 卒		167	39.6
大 卒 以 上		167	39.6
母 학 력 ¹⁾			
國 卒 以 下		148	35.0
中 · 高 卒		186	44.1
大 卒 以 上		88	20.9
형 제 수(명) ²⁾			
2	以 下	67	18.0
3	以 上	358	82.0

형 제 순 위 ³⁾			
첫	째	124	28.4
둘	째 以 下	295	67.5
無	男 獨 女	7	0.1

註: 무응답 14명¹⁾, 11명²⁾, 10명³⁾ 제외함

2. 結婚意思

1) 結婚의 必要性

結婚의 必要性에 대한 태도는 앞으로 未婚率의 변동과 獨身性向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家族保健學的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 結婚의 必要性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와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좋다」가 전체 중 72.7%를 차지하므로써, 응답자의 대부분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할 필요가 없다」와 「안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좋다」가 8.9%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未來 우리나라 未婚女性의 獨身性向을 反映해 준다는 점에서 日本 未婚女性의 獨身希望率인 4.6%⁴⁾와 비교해 본 연구의 결과가 높게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를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結婚의 必要性은 점점 더 감소되어 70년대 이후 계속적인 未婚率의 증가⁵⁾와 함께 獨身率도 증가되리라고 예측된다.

한편 個人特性別 結婚의 必要性에 대한 유의적 차이는 年齡에서만 差異가 나타났다(표 3 참조). 즉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좋다」가 20대 중반에서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0대 후반에서 79.7%, 20대 초반에서 6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할 필요가 없다」와 「안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좋다」가 20대 초반에서 8.7%, 20대 후반과 20대 중반에서 각각 8.5%, 4.6%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적어질수록 독신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P<.05). 반면 결혼적령기가 지난 20대 후반이 20대 중반보다 獨身性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미 응답자가 獨身을 志向하고 未婚인 채로 남아 있거나, 또는 未婚 자체를 合理化시 키려는 傾向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個人特性別 結婚의 必要性

단위: %(N)

개 인 특 성	전 체	반드시해야 한 다	하 는 것 이 더 좋 다	안 하는 것 이 더 좋 다	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다.	x ² -test
전 체	100(429)	22.1	50.1	6.8	2.1	18.9	
연 령 (세)							
21 - 23	100(262)	19.1	47.7	7.6	3.1	22.5	
24 - 26	100(108)	24.1	57.4	4.6	-	13.9	*
27 以 上	100(59)	32.2	47.5	6.8	1.7	11.9	14.79
교 육 수 준							
高 卒	100(189)	25.4	48.1	7.4	1.6	17.5	
大 在 以 上	100(240)	19.6	51.7	6.3	2.5	20.0	2.87
부 모 생 존							
父 母 生 存	100(366)	20.5	51.4	7.1	1.6	19.4	
便 父 母	100(63)	31.7	42.9	4.8	4.8	15.8	11.93
父 학 력							
國 卒 以 下	100(102)	27.5	47.1	4.9	2.0	18.6	
中 · 高 卒	100(163)	20.9	54.6	6.1	2.5	16.0	
大 卒 以 上	100(164)	20.1	47.6	8.5	1.8	22.0	5.89
母 학 력							
國 卒 以 下	100(161)	28.6	50.3	3.7	1.9	15.5	
中 · 高 卒	100(182)	20.3	50.5	7.7	2.2	19.8	
大 卒 以 上	100(86)	14.0	50.5	10.5	2.3	23.3	12.03
형 제 수 (명)							
2 以 下	100(66)	22.7	43.9	7.6	1.6	24.2	
3 以 上	100(363)	22.0	51.2	6.6	2.2	17.9	3.35
형 제 순 위							
첫 째	100(123)	22.0	46.3	9.8	0.8	21.1	
둘 째 以 下	100(289)	22.5	51.2	5.5	2.8	18.0	
無 男 獨 女	100(6)	16.7	50.0	-	-	33.3	7.38

*p<.05

2) 結婚 利點

결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結婚의 利點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가 41.9%,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38.4%, 「부부간의 도움으로 생활이 편리해 질 수 있다」 9.8%, 「사회·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6.2%, 기타 2.1% 順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1.6%가 結婚이 利點이

없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結婚의 必要性에서 獨身意思를 나타낸 응답자 중에 결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獨身을 志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個人特性別 結婚의 利點에 대한 유의적 차이는 年齡과 본인 및 부모의 教育水準에서 차이를 나타냈다(표 4 참조). 먼저 年齡別로 가장 높게 나타난 結婚의

표 4. 個人特性別 結婚의 利點

단위: %(N)

개 인 적 특 성	전 체	사 회 경 제 적 안 정	정 서 적 안 정	사 랑 하 는 사 랑 과 함 께 살 수 있 는 지	부 부 간 의 도 움 으 로 생 활 편 리	기 타	이 점	χ^2 -test
전 체	100(430)	6.2	38.4	41.9	9.8	2.1	1.6	
연 령 (세)								
21 - 23	100(263)	5.0	35.7	46.8	8.0	1.9	2.7	
24 - 26	100(108)	4.6	41.7	41.7	12.0	-	-	***
27 以 上	100(59)	15.3	44.1	20.3	13.6	6.8	-	40.93
교 육 수 준								
高 卒	100(188)	9.0	42.0	34.0	13.8	1.1	-	***
大 在 以 上	100(242)	4.2	35.5	47.9	6.6	2.9	2.9	32.70
부 모 생 존								
父 母 生 存	100(368)	5.1	39.1	41.6	10.3	1.9	1.9	
便 父 母	100(62)	13.1	34.4	42.6	6.6	3.3	-	15.54
父 학 력								
國 卒 以 下	100(101)	12.9	36.6	43.6	5.9	1.0	-	
中 · 高 卒	100(162)	3.7	43.2	35.2	14.2	3.8	-	***
大 卒 以 上	100(167)	4.8	34.7	47.3	7.8	1.2	4.2	39.43
母 학 력								
國 卒 以 下	100(160)	10.0	39.4	42.5	5.6	2.5	-	
中 · 高 卒	100(182)	4.9	39.0	39.0	13.7	2.2	1.1	***
大 卒 以 上	100(88)	2.2	35.2	46.6	9.1	1.1	5.7	37.80
형 제 수 (명)								
2 以 下	100(7)	-	28.6	71.4	-	-	-	
3 以 上	100(363)	6.9	39.1	39.4	10.7	1.9	1.9	14.31
형 제 순 위								
첫 째	100(121)	4.1	41.0	41.8	8.2	2.4	2.5	
둘 째 以 下	100(302)	7.3	37.7	41.1	10.6	2.0	1.3	
無 男 獨 女	100(6)	-	16.7	13.3	-	-	-	10.54

***p<.001

利點을 살펴보면 20대 초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가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중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와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가 각각 41.7%로 똑같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20대 후반에서는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대 후반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와 「부

부간의 도움으로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다」의 利點을 20대 초·중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내므로서, 이러한 결과는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 보다 결혼을 生活的인 것으로 받아들여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겠다. (P<.001)

教育水準別로는 高卒 응답자가 大在以上 응답자보다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부부간의 도움으로

생활이 편리해 질 수 있다」 및 「사회·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에서 모두 높게 대답하였다. (P<.001) 父母의 教育水準別로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의 利點보다는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부부간의 도움으로 생활이 편리해 질 수 있다」 및 「사회·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의 利點에서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 (P<.001)

3. 希望 結婚時期

1) 希望 初婚年齡

本 研究에서 응답자가 원하는 希望 結婚時期는 平均 26.93세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 조사인 1930년³⁾의 17.0세, 1940년⁶⁾의 17.5세, 1960년⁷⁾의 21.6세, 1970년⁸⁾의 23.3세, 1980년⁹⁾의 24.1세, 1988년¹⁰⁾의 24.7세, 1989년¹¹⁾의 24.8세와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아진 결과이며, 또한 1988년³⁾ 市内에 居住하고 있는 未婚女性을 대상으로 조사한 25.0세보다도 높은 것이었다.

이와같은 初婚年齡 상승의 原因은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여성의 교육 및 사회진출의 기회가 두드러지게 확대되었고, 이에 여성의 가치관에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에 앞서 언급한 結婚의 必要性 감소와 함께 初婚年齡도 늦춰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만혼화 현상은 계속되어질 전망이었고, 따라서 未來의 가족주기(family life cycle)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가임연령 기간에도 영향을 미쳐 앞으로의 출산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結婚時期에 영향을 미치는 個人的 特性을 살펴 보면 응답자의 年齡, 父母生存與否, 父母의 教育水準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응답자의 教育水準과 兄弟順位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표5 참조). 이것은 공(1990)³⁾의 연구에서 結婚時期에 영향을 미치는 個人特性으로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형제순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의한 차이는 年齡別로 20대 초반에서 26.41세, 20대 중반에서 27.0세, 20대 후반에서 29.3세로, 응답자의 연령과 비례하여 원하는 결혼시기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즉 20대 초반과 중반

표 5. 個人特性別 希望 結婚時機

개인적특성	전체(명)	평균희망 연령(세)	표준편차	유의수준
전 계	400	26.93	.095	
연령(세)				
21 - 23	246	26.41	.108	
24 - 26	104	27.00	.127	***
27 以上	50	29.30	.285	F=64.026
교육수준				
高 卒	179	26.89	.147	
大在以上	221	26.95	.123	t=-.300
부모생존				
父母生存	343	26.76	.098	***
便 父 母	57	27.95	.267	t=-4.520
父 학 력				
國卒以下	95	27.26	.189	
中·高卒	156	27.15	.160	***
大卒以上	149	26.47	.141	F=7.202
母 学 력				
國卒以下	151	27.32	.165	
中·高卒	168	26.68	.144	**
大卒以上	81	26.69	.172	F=5.543
형제수(명)				
2 以下	59	26.59	.244	
3 以上	331	26.99	.160	t=-1.590
형제순위				
첫 째	113	26.88	.184	
둘째以下	282	26.95	.112	
無男獨女	5	26.40	.600	F=.264

P<.01 *p<.001

에서는 26-27세에 結婚을 希望한 반면, 20대 후반에서는 평균 결혼 연령보다 월등히 높은 29세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을 다시 각 연령별로 분석해 본 결과 27세부터 34세 응답자까지 希望結婚時期에 있어서 현재 응답자 자신의 연령과 거의 일치되게 나타나므로서, 마땅한 配偶者가 있으면 곧 結婚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父母 生存與否에 따라 希望結婚時期도 다르게 나타

났는데, 便父母의 경우 27.95세인 반면 兩親生存인 경우 26.76세로, 결혼부모에서 보다 晩婚傾向을 보였으며(P<.001), 또한 父母의 教育水準別로는 父母의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晩婚傾向을 나타내었다.(P<.01)

4. 配偶者 選擇

1) 配偶者와의 年齡差

配偶者와의 年齡差는 結婚時期를 決定하는 과정 중 미혼여성의 초혼연령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결국 여성의 可任年齡 기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配偶者와의 希望 年齡差는 전체 평균 3.1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1988)¹²⁾의 연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부부의 初婚年齡差와 비교해 볼 때 1935년에 4.1세, 1960년에 3.9세, 1985년에 3.4세로 최근에 이를 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과, 1980년¹¹⁾에 다시 3.3세로 다소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므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김(1991)¹³⁾, 공(1990)³⁾의 연구에서 80년대 이전까지 배우자와의 年齡差는 급속히 좁혀지는 추세를 보인 후 80년대 이후에는 3세 差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볼 때, 앞으로 結婚 年齡差는 本 研究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3세 差의 現狀態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소의 감소 傾向을 나타내리라고 예측된다.

한편 배우자와의 年齡差와 個人特性別 유의적 차이를 살펴보면 年齡 및 教育水準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6 참조). 먼저 年齡別로는 20대 초반과 중반에서 각각 3.15세, 3.31세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반면 20대 후반에서는 2.44세 差로 평균 3.1세보다 두드러지게 적게 나타나 응답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원하는 年齡差는 적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P<.001). 이러한 결과는 日本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1989)⁴⁾에서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data 값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결과로 일본 미혼여성의 연령별 배우자와의 희망 연령차는 20-22세에서 3.1세 差, 23-25세에서 3.0세 差, 26-28세에서 2.9세 差, 29-31세에서 2.6세 差, 32-34세에서 전체 平均 3.0세 差보다 월등히 적은 1.4세 差로서, 未婚女性의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配偶者와의 年齡差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미혼 남자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教育水準別 원하는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高卒 응답자가 평균 3.48세 差로 大在以上 응답자의 평균 2.78세 差보다 많게 나타났다.(P<.001)

표 6. 個人特性別 婚姻 年齡差

개인적특성	전체(명)	평균희망 연령차(세)	표준편차	유의수준
전 체	400	3.10	.070	
연령(세)				
21 - 23	241	3.15	.087	
24 - 26	105	3.31	.141	***
27 以上	54	2.44	.179	F=7.608
교육수준				
高 卒	182	3.48	.108	***
大在以上	218	2.78	.090	t=5.150
부모생존				
父母生存	341	3.06	.076	
便 父 母	59	3.29	.169	t=-1.200
父 학 력				
國卒以下	95	3.11	.127	
中·高卒	155	3.23	.124	
大卒以上	150	2.95	.108	F=1.532
母 학 력				
國卒以下	150	3.18	.115	
中·高卒	169	3.07	.110	
大卒以上	81	3.01	.145	F=.458
형제수(명)				
2 以下	59	3.17	.162	
3 以上	331	3.08	.079	t=.490
형제순위				
첫 째	115	3.15	.137	
둘째以下	280	3.07	.082	
無男獨女	5	3.60	.510	F=.462

*** p<.001

2) 配偶者 選擇條件

本 研究에서 나타난 配偶者 選擇條件은 전체 응답자 중 성격이 71.6%, 건강 11.0%, 직업 6.1% 順으로 기타가

10.7%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1980)¹⁴⁾, 홍(1970)¹⁵⁾, 최(1980)¹⁶⁾의 연구와 일치되고 있다. 반면 강(1984)¹⁷⁾의 연구에서 나타난 성격, 장래성, 건강 順과 비교해 볼 때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응답자가 配偶者의 選擇條件으로 性格 다음으로 健康을 고려하고 있음은 健康한 結婚生活의 영위라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한편 個人特性別 配偶者 選擇條件과의 상관관계는

응답자의 教育水準과 父의 教育水準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7 참조). 먼저 응답자의 教育水準別로는 健康條件과 관련하여 고졸이 16.1%, 대재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고졸 응답자가 대재이상 응답자보다 배우자의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父의 教育水準別로는 職業條件과 관련하여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국졸이하에서 11.8%, 중·고졸에서 5.4

표 7. 個人特性別 配偶者 選擇條件

		단위: % (N)					
개인적 특성	전 체	직 업	성 격	건 강	기 타	x ² -test	
전 체	100(436)	6.7	71.6	11.0	10.7		
연 령 (세)							
21 - 23	100(268)	6.0	68.7	11.6	13.8		
24 - 26	100(108)	7.4	77.8	8.3	13.7		
27 以 上	100(60)	8.3	73.3	13.8	4.6	13.40	
교 육 수 준							
高 卒	100(192)	8.9	65.1	16.1	9.9	*	
大 在 以 上	100(244)	4.9	76.6	7.0	11.5	14.42	
부 모 생 존							
父 母 生 存	100(373)	5.9	72.1	11.5	10.5		
便 父 母	100(63)	11.3	67.7	8.1	12.9	6.30	
父 학 력							
國 卒 以 下	100(102)	11.8	59.8	12.7	15.7		
中 · 高 卒	100(167)	5.4	72.5	13.8	8.3	*	
大 卒 以 上	100(167)	4.8	77.8	7.2	10.2	25.24	
母 학 력							
國 卒 以 下	100(162)	9.9	64.8	14.8	10.5		
中 · 高 卒	100(186)	4.3	73.7	10.2	11.8		
大 卒 以 上	100(88)	5.7	79.5	5.7	9.1	17.08	
형 제 수 (명)							
2 以 下	100(67)	4.5	70.1	11.9	13.5		
3 以 上	100(369)	7.0	71.8	10.8	10.4	17.82	
형 제 순 위							
첫 째	100(124)	4.0	69.4	12.9	13.7		
둘 째 以 下	100(306)	7.5	72.9	9.8	9.8		
無 男 獨 女	100(6)	16.7	50.0	33.3	0.2	23.08	

* p<.05

%, 대졸이상에서 4.8%로서, 父의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직업을 높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父의 教育水準이 配偶者 選擇時 배우자의 職業에 대한 考慮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아닌가 사료된다. (P<.05)

3) 配偶者 選擇方法

본 연구에서 나타난 配偶者 選擇方法은 전체 응답자 중 59.1%가 직장(학교) 및 씨름활동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고, 부모 및 친척 등의 소개를 통한 match의 형태가 23.7%, 기타가 1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順位는 조(1980)¹⁴⁾, 정(1984)¹⁸⁾, 통계청¹¹⁾ 등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배우자 선택방법과 관련하여 中媒婚이 戀愛婚보다 초혼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²⁾는 점에서 配偶者 選擇方法의 변화는 家族保健에서 관심을 모으게 된다. 즉 194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제도하에서 match의 형태가 96%²⁾로 主從을 이루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23.7%의 결과는

크게 변화된 것으로, 앞으로도 배우자 선택방법의 양상은 계속 변화될 展望이었다.

한편 個人的 特性에 따른 配偶者 選擇方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年齡, 教育水準, 父母生存與否, 父母의 教育水準, 兄弟數 및 兄弟順位 모두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표 8 참조).

즉 부모나 친척의 소개를 통한 match의 형태가 아닌 직장 및 씨름활동을 통한 戀愛婚 형태의 選好는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P<.001),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했고(P<.001), 편부모인 경우보다는 양친 모두 생존한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001),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5), 형제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P<.05) 끝으로 兄弟順位別로는 첫째가 67.7%, 둘째이하가 55.7%, 무남독녀가 49.9% 順으로, 가장 높게 직장 및 씨름활동을 통하여 배우자 선택방법이 이루어지기를 希望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무남독녀에서는 부모동에 의한 소개선택방법이 높았다. (P<.05)

표 8. 個人特性別 選擇方法

단위: %(N)

개인적특성	전 체	부 모 및 친 척 소 개	직 장(학교) 및 씨 림 활 동	기 타	α^2 -test
전 체	100(430)	23.7	59.1	17.2	
연 령 (세)					
21 - 23	100(265)	21.2	64.2	14.7	
24 - 26	100(107)	23.3	56.1	20.6	***
27 以 上	100(58)	36.2	41.4	22.4	35.02
교 육 수 준					
高 卒	100(189)	29.6	53.5	16.9	***
大 在 以 上	100(241)	19.1	63.5	17.4	43.03
부 모 생 존					
父 母 生 存	100(367)	24.5	61.0	14.4	***
便 父 母	100(63)	19.3	48.4	32.3	30.36
父 학 력					
國 卒 以 下	100(100)	29.0	55.0	16.0	
中 · 高 卒	100(164)	25.0	53.7	21.3	*
大 卒 以 上	100(166)	19.3	66.8	13.9	25.84
母 学 力					

國 卒 以 下	100(158)	31.0	51.2	17.7	
中 · 高 卒	100(184)	20.1	60.4	19.6	**
大 卒 以 上	100(88)	18.1	69.4	11.4	29.79
형 제 수(명)					
2 以 下	100(67)	19.4	62.9	16.7	*
3 以 上	100(363)	24.5	58.1	17.4	25.52
형 제 순 위					
첫 째	100(121)	16.6	67.7	15.7	
둘 째 以 下	100(303)	26.5	55.7	7.8	*
無 男 獨 女	100(6)	33.3	40.9	16.8	27.15

*p<.05 **p<.01 ***p<.001

4) 配偶者 決定方法

本 研究에서 配偶者 決定方法은 전체 응답자 중 「본인결정 후 부모승락의 방법을 선택하겠다」가 8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결정방법으로서 「부모결정 후 본인등의」 6.7%, 「전적으로 본인결정」의 경우가 5.1%를 나타냈으며, 「전적으로 부모결정」은 전혀 응답이 없었다.

한편 個人特性別 配偶者 決定方法과의 상관관계는 父母生存與否와 兄弟順位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9 참조). 먼저 父母生存與否別로 살펴보면 「본인결정 후 부모승락」의 경우가 양친생존과 편부모 모두에서 각각 88.2%,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결정 후 본인 등의」는 양친생존 7.0%, 편부모 4.7%로 양친생존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전적으로 본인결정」은 편부모 8.0%, 부모생존 4.6%로 편부모를 가진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나므로서, 부모의 생존여부가 결혼결정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1)

표 9. 個人特性別 配偶者 決定方法

단위: %(N)

개인적 특성	전 체	전적인 부모 결정	부모결정 후 본인 등의	본인결정 후 부모승락	전적인 본인 결정	기 타	α^2 -test
전 체	100(435)	-	6.7	88.0	5.1	0.2	
연 령 (세)							
21 - 23	100(267)	-	8.2	86.1	5.2	0.4	
24 - 26	100(108)	-	4.6	92.6	2.8	-	
27 以 上	100(60)	-	3.3	88.3	8.3	-	6.05
교 육 수 준							
高 卒	100(192)	-	9.4	85.4	5.2	-	
大 在 以 上	100(243)	-	4.5	90.1	4.9	0.4	4.86
부 모 생 존							
父 母 生 存	100(372)	-	7.0	88.2	4.6	0.3	**
便 父 母	100(63)	-	4.7	87.3	8.0	-	19.73
父 학 력							
國 卒 以 下	100(166)	-	5.4	89.8	4.8	-	

中・高卒	100(167)	-	6.6	87.4	5.4	0.6	
大卒以上	100(102)	-	8.8	86.3	4.9	-	2.86
母 학 력							
國卒以下	100(88)	-	4.5	88.6	6.8	-	
中・高卒	100(185)	-	5.9	89.2	4.3	0.5	
大卒以上	100(162)	-	8.6	86.4	4.9	-	3.86
형제수(명)							
2以下	100(67)	-	10.4	82.1	7.5	-	
3以上	100(368)	-	6.0	89.1	4.6	0.3	7.91
형제 순위							
첫째	100(124)	-	11.3	82.3	6.5	-	
둘째以下	100(305)	-	4.3	90.8	4.6	-	*
無男獨女	100(305)	-	33.3	66.7	-	-	17.33

*p<.05 **p<.01

兄弟順位別로는 「부모결정 후 본인 동의」가 무남독녀 33.3%, 첫째가 11.3%, 둘째이하가 4.3% 順으로, 배우자 결정방법에 있어서 부모의 결정권이 둘째이하에서보다 무남독녀와 첫째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1) 이러한 결과는 조(1980)¹⁴⁾, 정(1984)¹⁸⁾ 등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것이었다.

5. 結婚후 家庭計劃

1) 子女觀

(1) 希望 子女數

本 研究에서 結婚을 假定으로 원하는 希望 子女數는 전체 응답자에서 평균 1.78명을 나타냈다. 이것은 日本 未婚女性이 希望하는 子女數 2.23명⁴⁾ 보다 0.45명이 낮은 결과이다.

希望 子女數와 관련하여 이(1978)¹⁹⁾이 年代別 研究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60년대 초에는 평균 4.4명에서 65년에는 3.9명으로 70년대 초반에는 다시 3.0명으로 감소되어, 76년에는 2.6명을 나타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최근에 이룰수록 希望 子女數는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하여 이(1983)²⁰⁾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치의 의식이 달라졌고, 사회가 산업화될수록 자녀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1.78명은 60년대 4-5명,

70년대 평균 2-3명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저하된 결과로서, 이로 미루어보아 希望 子女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展望되었다.

한편 個人特性別 希望 子女數와의 상관관계는 年齡, 教育水準, 父母生存與否, 父母의 教育水準, 兄弟數 및 兄弟順位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0 참조).

(2) 男兒 選好度

또한 本 研究에 나타난 男兒選好度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1.6%만이 子女의 性別을 구분해서 갖기 원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8.4%는 자녀의 性別에는 관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전통적인 혈통계승의 가족제도 하에서 절대적으로 男兒를 갖기 원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김(1988)²¹⁾의 연구에서 며느리가 손자를 못 낳았을 경우 첩을 들여서라도 얻겠다는 노인의 의지와, 정(1972)²²⁾, 박(1982)²³⁾의 연구에서 아들을 못 낳았을 경우 딸이 못이 되더라도 계속 낳겠다는 女性응답자의 의지가 多數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男兒選好사상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 하겠다.

표 10. 個人特性別 希望 子女數

개인적 특성	전체(명)	평균희망 자녀수(명)	표준편차	유의수준
전 체	433	1.781	.069	
연령(세)				
21 - 23	267	1.78	.049	F = .218
24 - 26	108	1.81	.069	
27 以上	58	1.72	.081	
교육수준				
高 卒	190	1.85	.049	t = 1.660
大在以上	243	1.73	.052	
부모생존				
父母生存	358	1.91	.050	t = .660
便 父 母	63	1.83	.140	
父 학 력				
國卒以下	100	1.77	.144	F = 2.181
中·高卒	166	1.76	.083	
大卒以上	166	1.96	.144	
母 학 력				
國卒以下	146	1.85	.050	F = .985
中·高卒	185	1.79	.062	
大卒以上	88	1.70	.089	
형제수(명)				
2 以下	62	2.03	.110	t = 1.480
3 以上	348	1.85	.049	
형제순위				
첫 째	123	1.80	.081	F = .099
둘째以下	304	1.78	.041	
無男獨女	6	1.67	.333	

과거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이루어져 왔던 우리나라 3세대 이상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오늘날에 와서 붕괴되고, 새로운 가족형태의 대두로서 核家族현상이 두드러지고 증가되고 있음을 反映한 결과라고 본다.

한편 個人特性別 媳父母와의 同居與否이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教育水準에서만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표 11참조). 즉 媳父母와 同居하기를 希望하는

표 11. 個人特性別 媳父母와의 同居與否

개인적특성	전 체	동거희망	별거희망	x ² -test
전 체	100(403)	36.7	63.3	
연령(세)				
21 - 23	100(251)	37.1	62.9	.62
24 - 26	100(99)	38.4	61.6	
27 以上	100(53)	32.1	67.9	
교육수준				
高 卒	100(170)	42.9	57.1	*
大在以上	100(233)	32.2	67.8	4.89
부모생존				
父母生存	100(348)	37.1	62.9	.65
便 父 母	100(55)	35.2	64.8	
父 학 력				
國卒以下	100(89)	36.0	64.0	3.31
中·高卒	100(155)	41.9	58.1	
大卒以上	100(159)	32.1	67.9	
母 학 력				
國卒以下	100(144)	41.7	58.3	2.38
中·高卒	100(172)	34.3	65.7	
大卒以上	100(87)	33.3	66.7	
형제수(명)				
2 以下	100(65)	41.5	58.5	1.59
3 以上	100(338)	35.8	64.1	
형제순위				
첫 째	100(119)	38.7	61.3	2.56
둘째以下	100(278)	35.6	65.4	
無男獨女	100(6)	50.0	50.0	

*p<.05

2) 媳父母와의 同居與否

(1) 媳父母와의 同居希望 與否

본 연구에서 媳父母와의 同居與否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同居희망」이 36.7%, 「別居희망」이 6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 후 시부모와 따로 살며 核家族 형태를 갖고자 원하는 未婚女性이 많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이(1970)²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응답자는 고졸에서 42.9%로 대재이상의 3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別居를 希望하고 있는 응답자는 대재이상에서 67.8%로 고졸 57.1%보다 더 높게 나타나므로서,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結婚 후 시부모와의 別居를 더 希望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5)

(2) 媳父母와의 同居希望 理由

本 研究에서 同居희망에 응답한 사람 중 그 同居希望

理由로서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가 75.7%, 「규범적 이유(장남)로」가 11.5%,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서」가 2.0% 順으로 나타났고, 個人特性別로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2 참조).

(3) 媳父母와의 別居希望 理由

本 研究의 응답자 중 媳父母와의 別居를 希望한 이 유로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번거로워서」가 55.5

표 12. 個人特性別 媳父母 同居希望 理由

단위: % (N)

개인적 특성	전 체	규범적 이유 로 (장 남)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서	기 타	x ² -test
전 체	100(148)	11.5	75.7	2.0	10.8	
연 령 (세)						
21 - 23	100(93)	9.7	76.3	2.2	11.8	
24 - 26	100(38)	18.4	73.7	-	7.9	
27 以 上	100(17)	5.9	76.5	5.9	11.8	4.77
교 육 수 준						
高 卒	100(73)	9.6	76.7	2.7	11.0	
大 在 以 上	100(75)	13.3	74.7	1.3	10.7	.84
부 모 생 존						
父 母 生 存	100(129)	11.6	76.0	1.6	10.9	
便 父 母	100(19)	10.5	73.7	5.3	10.5	1.16
父 학 력						
國 卒 以 下	100(32)	15.6	68.8	3.1	12.5	
中 · 高 卒	100(65)	9.2	83.1	-	7.7	
大 卒 以 上	100(51)	11.8	70.6	3.9	13.7	5.10
母 학 력						
國 卒 以 下	100(60)	15.0	75.0	1.7	8.3	
中 · 高 卒	100(59)	8.5	79.7	1.7	10.2	
大 卒 以 上	100(29)	10.3	69.0	3.4	17.2	3.28
형 제 수(명)						
2 以 下	100(27)	13.0	85.2	-	4.3	
3 以 上	100(121)	11.6	73.6	2.5	12.4	3.31
형 제 순 위						
첫 째	100(46)	15.2	76.1	-	8.7	
둘 째 以 下	100(99)	10.1	74.7	3.0	12.2	
無 男 獨 女	100(3)	-	100.0	-	-	4.93

%이었고, 「규범적 이유(차남)」가 12.1%, 「시부모가 분가를 원해서」가 10.1%의 順이었다.(표 13 참조).

3) 就業 與否

(1) 結婚 후 就業希望 與否

本 研究에서 就業 希望은 88.4%로 就業 非希望 11.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므로서, 대부분의 미혼여성이

결혼 후 직장을 갖기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청 자료(1973, 1986)²⁵⁾의 1970년 기혼여성의 취업율 35.6%와 1985년 42.5%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결혼 후 여성의 취업율은 현재 기혼여성의 취업율 수준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個人特性別 就業與否와는 年齡 및 教育水準에서

표 13. 個人特性別 媳父母와의 別居 希望理由

단위: % (N)

개인적 특성	전 체	규범적 이유 로 (차 남)	부모와 함께 사는 번 거 로 와 서	부모가 분가를 원 해 서	기 타	χ^2 -test
전 체	100(247)	12.1	55.5	10.1	22.3	
연 령 (세)						
21 - 23	100(153)	9.8	56.9	9.8	23.5	
24 - 26	100(61)	13.1	50.8	11.5	24.6	5.23
27 以 上	100(33)	21.2	57.6	9.1	12.1	
교 육 수 준						
高 卒	100(91)	18.7	46.2	12.1	23.1	*
大 在 以 上	100(156)	8.3	60.9	9.0	21.8	7.91
부 모 생 존						
父 母 生 存	100(213)	12.2	55.9	9.9	22.1	
便 父 母	100(34)	11.8	52.9	11.8	23.5	1.11
父 학 력						
國 卒 以 下	100(55)	18.2	54.5	10.9	16.4	
中 · 高 卒	100(86)	7.6	59.3	9.3	24.4	
大 卒 以 上	100(106)	13.2	52.8	10.4	23.6	5.23
母 学 력						
國 卒 以 下	100(81)	14.8	50.6	11.1	23.5	
中 · 高 卒	100(109)	11.9	56.9	11.0	20.2	
大 卒 以 上	100(57)	8.8	59.6	7.0	24.6	2.68
형 제 수(명)						
2 以 下	100(38)	10.5	63.2	5.3	21.0	
3 以 上	100(209)	12.4	54.1	11.0	22.6	5.23
형 제 순 위						
첫 째	100(72)	9.7	56.9	6.9	26.4	
둘 째 以 下	100(172)	13.4	55.2	11.1	20.3	
無 男 獨 女	100(103)	-	33.3	33.3	33.4	9.26

*p<.05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18 참조). 먼저 年齡別로 본 就業 希望의 경우 20대 초반에서 91.1%, 20대 후반에서 89.6%, 20대 중반에서 80.9% 순으로 나타났다. (P<.05)

다음 教育水準別로는 대재이상이 94.0%로 고졸 응답자의 80.0%보다 높게 나타나, 결혼 후 취업경향은 고학력자일수록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P<.001)(표14 참조)

표 14. 個人特性別 就業 希望與否

		단위: % (N)			
개인적특성	전 체	취업희망	취업비희망	x ² -test	
전 체	100(388)	88.4	11.6		
연령(세)					
21 - 23	100(246)	91.1	8.9		
24 - 26	100(94)	80.9	19.1	*	
27 以上	100(48)	89.6	10.4	6.98	
교육수준					
高 卒	100(155)	80.0	20.0	***	
大在以上	100(233)	94.0	6.0	17.80	
부모생존					
父母生存	100(336)	89.0	11.0		
便 父 母	100(52)	84.3	15.7	.65	
父 학 력					
國卒以下	100(84)	79.8	20.2		
中·高卒	100(148)	87.2	12.8		
大卒以上	100(156)	94.2	5.8	3.31	
母 학 력					
國卒以下	100(136)	80.9	19.1		
中·高卒	100(170)	90.6	9.4		
大卒以上	100(82)	96.3	3.7	2.38	
형제수(명)					
2 以下	100(65)	92.4	7.6		
3 以上	100(322)	87.6	12.4	1.59	
형제순위					
첫 째	100(118)	93.2	6.8		
둘째以下	100(264)	86.7	13.3		
無男獨女	100(6)	66.7	33.3	2.56	

* p<.05 ** p<.01 ***P<.001

(2) 結婚 후 就業希望 理由

결혼 후 就業을 希望한 경우 그 理由로는 자아실현(53.8%), 경제적 자립(35.4%), 여성의 취업추세(10.8%) 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個人特性別 就業希望 理由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教育水準, 兄弟順位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15 참조). 즉 教育水準別로 대재이상에서는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 응답자에서는 「경제적 자립」의 이유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01) 兄弟順位別로는 자아실현의 이유로 무남독녀, 첫째, 둘째이하 順으로 나타났다. (P<.01)

IV. 結論 및 提言

本 研究은 일부 未婚女性의 結婚觀에 대한 調査研究로서, 이들의 結婚觀이 앞으로의 結婚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結果가 家族保健에서 어떤 意味를 갖고 있는지를 檢討하는 데 目的을 두었다.

이 研究을 위한 調査는 서울시내 20대 未婚女性 500명을 對象으로, 1991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설문지를 도구로 현지배부 및 수거방법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SPSS로 통계처리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結婚의 必要性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반드시 해야한다」와 「하는 것이 더 좋다」가 72.2%로 肯定的인 態度를 갖고 있었다. 반면 結婚의 必要性에 대한 否定的인 태도는 「할 필요가 없다」와 「안하는 것이 더 좋다」가 8.9%로, 이러한 結果는 日本의 4.6%보다 높은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 未婚女性의 結婚에 대한 必要性의 減少와 함께 獨身性向이 增加되고 있다는 趨勢를 反映한 것이라고 보겠다.
2. 希望 結婚時期는 平均 26.93세로, 晩婚傾向이 계속될 것을 豫示하고 있었다. 이러한 晩婚은 年齡이 높고(P<.001), 父母의 教育水準이 낮고(P<.01), 便父母인 경우일수록 關聯性이 높았다. (P<.001)
3. 結婚時 配偶者와의 希望 年齡差는 平均 3.1세로, 최근의 통계청 資料보다 0.2세 더 좁혀진 趨勢였으며, 이는 응답자의 年齡이 높고,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그 差가 좁게 나타났다. (P<.001)

표 15. 個人特性別 就業 希望理由

단위 : % (N)

개인적 특성	전 체	경제적자립	여성의취업추세	자아실현	x ² -test
전 체	100(342)	35.4	10.8	53.8	
연 령 (세)					
21 - 23	100(224)	38.4	8.5	53.1	
24 - 26	100(76)	26.3	17.1	56.6	
27 以 上	100(42)	35.7	11.9	52.4	6.44
교 육 수 준					
高 卒	100(124)	43.5	14.5	41.9	**
大 在 以 上	100(218)	30.7	8.7	60.6	11.21
부 모 생 존					
父 母 生 存	100(298)	35.6	11.1	53.4	*
便 父 母	100(44)	34.1	9.1	56.8	9.02
父 학 력					
國 卒 以 下	100(67)	41.8	10.4	47.8	
中 · 高 卒	100(129)	33.3	13.2	53.5	
大 卒 以 上	100(146)	34.2	8.9	56.8	2.886
母 学 力					
國 卒 以 下	100(110)	40.9	10.9	48.2	
中 · 高 卒	100(153)	31.4	14.4	54.26	
大 卒 以 上	100(79)	35.4	3.8	60.8	8.40
형 제 수 (명)					
2 以 下	00(61)	26.2	8.2	65.6	
3 以 上	100(281)	37.4	11.4	51.2	6.74
형 제 순 위					
첫 째	100(109)	31.2	9.2	59.6	
둘 째 以 下	100(229)	38.0	11.8	50.2	**
無 男 獨 女	100(4)	-	-	100.0	15.12

* p<.05 **p<.01

4. 配偶者의 選擇條件은 性格, 健康, 職業 등의 順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家門보다는 個人을 重視하는 傾向을 보였다.
5. 配偶者 選擇方法에 있어서는 中媒婚보다 戀愛婚을 選好하는 傾向이 顯著하며 이는 年齡이 낮고,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그리고 兩親 모두 生存한 경우와 兄弟數가 적고, 父母의 教育水準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戀愛婚을 더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6. 結婚 후 希望 子女數는 平均 1.78명으로, 少子女를 追求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個人的 特性과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7. 結婚 후 媳父母와의 同居與否는 同居보다는 別居를 希望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핵가족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었고, 한편 媳父母와의 同居 希望은 대상자의 教育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P<.05)

8. 結婚 후 就業與否는 전체 응답자 중 就業希望이 다수를 차지하므로써, 앞으로도 결혼 후 女性의 就業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豫測되었고, 이러한 취업성향은 응답자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05)

이상과 같이 未婚女性들의 結婚觀은 늦은 結婚과, 配偶者와의 적은 年齡差, 少出産, 核家族, 그리고 結婚後 就業 등 個人中心的 價値觀이 顯著해지면서, 家族形態나 生活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例示하고 있다. 여기에서 晩婚과 少子女 追求傾向은 이제까지의 出産調節 政策에 肯定的인 側面에서 보다 적절한 管理對策의 수립이 要請되어진다고 하겠다. 또한 오늘날 結婚의 自律性은 개인의 責任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責任性이 뒤따르지 못할 때 未來의 離婚 및 別居요인은 불가피해지게 되므로 家族共同體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할 時點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보다 國家的 次元에서 家族保健 政策의 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全國的인 규모의 미혼여성들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된다.

참 고 문 헌

1. 강호철(1984),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관한 조사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1.
2. 경제기획원(1987), 「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3. 김성혜(1991), "결혼관련 요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24-25.
4. 김주수(1973), 「가족관계학」, 진명문화사, p. 49에서 재인용.
5. 김초강(1988), 「노인회를 통한 가족계획 시범사업 최종 평가 보고서」, 대한가족계획협회.
6. 노동청(1973, 1986), 「한국노동통계연감」.
7. 박금산(1982), "성숙도에 따른 성과 결혼생활에 대한 미혼여성의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신혜성(1988), "한국인의 결혼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32.

9. 이옥임, 이옥주(1983), 「가족관계학」, 수학사, pp. 164-166.
10. 이해영, 권태환(1978), 「한국사회 III」,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pp. 856-864.
11. 이효재 편(1988),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까치출판, pp. 68-97.
12. 이효재(1970), "도시주부생활에 관한 실태조사", 「論叢」, 제19집, 이대출판부, p. 4.
13. 정범모 외(1974), 「가족계획의 심리학적 탐색」, 행동과학연구소, p. 17.
14. 정현아(1984), "여대생의 자아실현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조규연(1980),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6. 최신덕(1980), "계층별로 결혼행동에 나타난 여성 역할", 「論叢」, 제36집, p. 246.
17. 통계청(1991), 「혼인·이혼통계 작성결과(인구동태 신고에 의한 분석)」.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A),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한국 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
21. Economic Planning Board(1982), 1980 Population Housing Census.
22. Economic Planning Board(1972), 1970 Population Housing Census.
23. Y.Kim(1967), "Age at Marriage and Trend of Fertility in Korea", World Population Conference II, Belgrade Published in New York, p. 147.
24. Y.S. Chang(1966), "Population in Early Modernization: Korea", Ph. D. thesis, Princeton University, pp. 258-330.
25. 厚生星人口問題研究所(1989). "獨身青年層의 結婚觀と子供觀", 「第9次出産力調査(結婚と出産に官する全國調査)」, Vol. 11.

<Abstract>

Research Study on the Marriage View of Partial Unmarried Women — Seen at the Side of Family Health —

Jin Lim , Cho Kang Kim

(Dept. of Healt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that the marriage view of unmarried women have on future marriage, and to study which meaning this result have in the family health.

Thus, for the study purpose which corresponds with it, the question survey was made, by making 500 unmarried women in the twenties in Seoul, from Aug. 16, 1991 to Sept. 5, 1991. And, as for the concrete survey contents, the idea on the marriage and family, marriage tiem, marriage selection, and the family planning after marriage etc. were center.

As for the result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is, the data analysis was made by use of SPSS. 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llowing conclusion was obtained.

1. About the necessity of marriage, 72.2% among the whole respondents had the affirmative attitude.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attitude about the necessity of marriage showed as 8.9%. This result is higher than 4.6% of Japan. Thus, it can be regarded as what reflected the tendency that the spinsterhood is increasing, with the decrease of the necessity about the marriage of the unmarried women of our nation recently.
2. Desiring marriage time is average 26.93 years old. Thus, it foreshowed that the late marriage tendency would continue. The relevancy to this late marriage was high ($P < .001$), in case that the age is high, and that the education level of parents is low ($P < .01$), and in case of the lone father and mother ($P < .001$)
3. The age difference with the spouse at the time of marriage is average 3.1 age. Thus, it was the tendency that 0.2 age was narrowed than the recent data of Statistics Agency. And, the difference appeared narrow, in case that the age of respondent is high and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 ($P < .001$).
The selection condition of spouse showed the tendency to take a serious view of individual rather than family clan, in the oder of character, health and job etc. In addition, as for the selection method of spouse, the tendency to prefer love marriage to marriage made up by a go-between. And, in case of the respondent whose age is low, education level is high, both parents are in existence ($P < .001$), number of brother is small, education level of parents is high, it showed to prefer the love marriage ($P < .05$).
4. Desiring number of sons and daughters after marriage is average 1.78. Thus, to prefer the small number of sons and daughters was clear. And, about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or not, to hope the separation rather than living together showed. So it was forecast that the future phenomenon of tendency of nuclear family of our nation will accelerate. In addition, about the employment or unemployment after marriage, to hope the employment occupied multitude. Thus, it was forecast that the employment inclination after marriage would increase continuously. In addition,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esiring number of sons and daughters and the individual feature, But, to hope to live together with the women's parents in law showed high, in case of low education ($P < .05$). And, to hope the employment showed high, in case that the age is low ($P < .05$), and that the education level is high ($P < .001$).